가난한 목사와 교인의 웃음

(에스겔 48:1~35)

30.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사천오백 척이라
31.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32. 동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33. 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34.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35.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가난한 목사와 교인의 웃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가난한 목사와 교인의 웃음'
본문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열두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제사장의 땅이 있고, 제사장의 땅 아래쪽으로는 레위인의 땅이 있고, 레위인의 땅 아래쪽으로는 이스라엘 열두지파 전체의 공동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서쪽으로는 왕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일곱 지파, 남쪽으로 다섯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특별히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48장에 걸쳐서 에스겔이 구구절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온 예언의 총 결론이 되겠습니다.
35절에 '여호와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과 성전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란 이전 설교에서 보았던 대로 칠흑 같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동쪽에서

태양이 솟아올라 성소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지성소의 휘장까지 빛이 비추이며 성소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처럼 선민 각자의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인해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방관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는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는 것은 마치 사해와 같습니다.
사해는 염도가 강해서 동식물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즉 관심을 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 대해 방관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셔서 이곳에 어촌이 생길 정도로 생명이 풍성한 바다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방관자가 된 대상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기도 하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러한 내용을 통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여호와삼마'라는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리며 '가난한 목사와 교인의 웃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을 심심찮게 말씀하십니다. 엊그제도 목사님 여섯 분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대형교회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안정된 규모를 갖춘 대형교회들이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숲을 보기 위해서는 숲을 빠져나와야 하듯이 대형교회의 문제 또한 내부적으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한 때는 도심의 야경을 밝히던 빨간 십자가들이 이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숫자는 많지 않을지라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교회개혁이 시작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교인들은 교계에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될 때에 몇몇 초대형교회로부터 위대한 일이 생겨날 것을 기대합니다. 사실 교계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도 합당한 일은 아닙니다만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성장 세미나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초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강사로 초대됩니다. 한국 교계에서는 이런 시도가 반세기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교회가 더욱 위축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혁의 기수는 되지 못하더라도 교회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찾아오신 여섯 분의 목사님들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목회현장도 아주 작고 재정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웃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교인들의 웃음으로부터 개혁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에 맞추어 성장해 왔던 초대형교회와 부자교인들이 주도해온 교계의 분위기는 마무리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초대형교회도 못하는 교회개혁이 어떻게 작은 교회의 목사님의 웃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교회개혁은 교인의 숫자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성도가 빠져나가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초대형교회에는 교인들이 밀물처럼 밀려드는 현 상황은 이제까지의 한국 기독교계의 종착역입니다. 교회개혁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웃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가난한 교인들의 웃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참 웃음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공부와 신학이론과 교리 속에 갇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와삼마로 표현된 에스겔의 결론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실 때에 진정한 웃음은 회복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과 부자교인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일에 대해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 숫자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작은 교회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는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작은 교회 목사와 가난한 교인의 웃음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억누르고 있는 목회현장에서 이 웃음이 터져 나오고, 가난에 억눌린 교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웃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에 교회개혁은 시작됩니다. 또한 이러한 목회자들과 교인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땅에 사회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교회 목사와 가난한 교인의 웃음’을 통한 개혁의 의미는 일찍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은 처지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고 고백할지라도 실제로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외에도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정문제를 안고 있는 작은 교회와 그리고 가난한 교인이라면 교회개혁의 주인공이 되실 절호의 기회에 놓이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없다는 말을 여섯 번이나 반복했던 것과 같습니다. 기존의 교인도 없고, 오는 교인도 없고, 재정도 없고, 부흥에 대한 가능성도 없고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만 있고 십자가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섯 번이나 없다고 한 후에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가질 때에 한국교회는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교회와 가난한 교인의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교인수가 반의 반 토막이 났을지라도 이 상황은 지금까지의 교회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준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현상의 마지막 보루가 대형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상태를 마지막으로 지탱하고 있는 대형교회들은 내버려두고, 이제는 거의 망하다시피 한 작은 교회 목회현장의 목사님들과 가난한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웃기 시작할 때에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은 시작되어갈 것입니다.
장로교(통합, 합동, 고신)만 해도 목사님이 대충 사만오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백 명 이상의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만 명이라고 합시다. 나머지 삼만 오천 명 목사님들은 백 명 이하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들이 기존의 교인도 없고 오는 교인도 없고 재정도 바닥이고 부흥의 가능성조차도 생각할 수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처해계십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은 주어져있습니다. 있는 십자가로 계신 하나님을 많이 가져서 웃을 수 있을 때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자처럼 취급되고 인생의 낙오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갖고 웃기 시작할 때에 대한민국 사회와 온 세상은 개혁의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방식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요단강과 지중해를 벽처럼 삼아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습니다. 그 중앙에 제사장의 땅이 주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성전을 위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땅 남쪽으로는 레위인의 땅이 주어지고, 레위인의 땅 아래쪽으로는 이스라엘 선민전체의 공동명의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왕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들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층층이 땅을 배정받습니다. 북쪽으로 일곱 지파, 남쪽으로 다섯 지파의 땅이 분배됩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땅 분배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레위인의 땅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선민전체의 공동명의의 땅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땅에 성읍을 세우는데 길이가 2.23km되는 정

방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읍의 동서남북 각 문에 세 지파씩 세 개의 문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공동명의의 땅을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요? 땅 분배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서 가깝게 위치한 지파도 있고 멀리 떨어진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의 땅을 둠으로써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어느 지파나 성전과 인접해있다는 의미를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맨 위에 있던 단 지파나 가장 아래에 있었던 갓 지파도 자신들의 땅에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땅에 인접한 공동명의의 땅을 함께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땅이 어느 지파와도 인접해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공동명의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상관없이 성전과의 관계는 열두지파가 모두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확대시키면 선민 각자가 성전을 인접하여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선민들이 성전과 인접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야 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생활화하는 장소가 여호와삼마의 장소였던 것처럼,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곧 마음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대해서는 방관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체와 지정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인이라고 하면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인의 조건은 매우 단호합니다. 십만 명 등록교인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숫자는 회원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교인 수는 몇이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자들 다시 말해 마음의 물줄기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보내진 자들만이 진정한 의미의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전의 개수로 교인의 수를 세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교인의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한 오해입니다.

요즘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 숫자가 25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정한 교인 숫자는 이보다도 훨씬 적을 것입니다. 250만 명 중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전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의 물줄기를 대고 있는 사람만이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내게 될 때에 세상의 방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면서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 자들

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가진 것이 없어도 웃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웃음이 전 세계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교회와 가난한 교인이 기회를 가졌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큰 교회와 부유한 교인들은 이것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힘차게 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지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1억을 호가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는 설교를 한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고급 차를 타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1억짜리 차를 고집하는 목사님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자동차는 이동수단 외의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고급 차를 타며 그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면 설령 뛰어난 언변으로 감동적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설교에 불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전달하는 설교가 아니라 뛰어난 문장을 가진 설교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하셔서 천국의 이야기를 하셨으며,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들과 세리와 창기를 비교하셨는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만족할 수 없는 한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갖고 싶어 하고 가진 것들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또 그것들이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된다고 믿으며 그것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여섯 분의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온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힘든 상황에 처해계십니다. 교인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갖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의 물줄기를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과 성전 생수의 사건이 나타나면서 웃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교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웃을 때에 개혁과 변화는 시작됩니다. 초대형교회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목사님

들을 비난하거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느끼기에는 교회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까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해온 교인들을 마지막으로 맡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일 뿐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세상의 눈으로는 완전히 망하고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곳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교회와 목사라는 명맥만이 겨우 유지되는 것 같은 장소에서 웃게 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그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올 때에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와 가난한 교인은 개혁의 기수들입니다.
대한민국에 40개 정도의 개신교 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단을 합해 목사님이 십만 명은 될 것입니다. 십만 명 중에서 대부분은 성도가 백 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마음의 물줄기를 하늘에 대고 하나님을 통해서 웃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웃게 될 때에 교회개혁은 어렵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 교인들은 절대로 작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는 가난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들에 다니는 교인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음의 물줄기를 하늘에 댈 때에 '여호와삼마' 즉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명의의 땅은 성전 생활화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쪽 끝에 살든 남쪽 끝에 살든 나의 공동명의의 땅이 성전이 세워진 제사장의 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곧 성전 생활화가 항상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공동명의의 땅이 '여호와삼마' 즉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뜻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통해 하늘에 물줄기를 댄다면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삼마'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역사적으로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 35절에서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은 바로 땅에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전체가 예수님과 연관된 성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날 이후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영광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는 성전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도 사회도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듯 작은 교회의 목사와 가난한 교인들을 개혁의 기수로 세우는 말씀을 통해 에스겔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한국 교회가 맞이한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가 여섯 번 없음 뒤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재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가난하고 힘든 형편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한 가난하고 힘든 형편에 있는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웃음을 터뜨림으로써 대한민국과 세계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기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